

## 【 주간 포커스 】

#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유형 및 특징

김동겸 선임연구원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대내정책 및 외환보유액 활용이 위기 대응에 한계를 보임에 따라 2010년 11월 G20 서울정상회의 주요 의제인 글로벌 금융안전망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현재 글로벌 안전망으로는 IMF와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신용공여, 통화스왑, 역내통화협정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의 경우 각각 장·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G20 서울정상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종합적이고 심도있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2010년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최초의 회의인 셰르파(sherpa) 회의와 개발 실무그룹 회의가 지난 7월 19일부터 22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음.

-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경제동향, Framework, 금융규제개혁, 국제금융기구 개혁, 무역, 에너지 등 G20 정상회의의 기존 합의 의제의 구체 이행 방안과
-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신규로 합의된 금융안전망 등 서울정상회의 주요 의제의 논의 일정과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알려짐<sup>1)</sup>.

□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 시 대내정책과 외환보유액 활용이 위기 대응에 한계를 보였다는 점에서<sup>2)</sup> 특히 글로벌 금융안전망(global safety net)<sup>3)</su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본고는 이에 대한 유형 및 특징을 살펴보고자 함.

-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외환보유액이 2,000억 달러 이하로 감소하자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오히려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
-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대내정책 수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

1)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서울 G20 정상회의 준비 셰르파회의 및 개발 실무그룹회의 개최', 보도참고자료, 2010. 7.20.

2) 외환보유액 축소도 환율 왜곡, global imbalance 심화 등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음.

3)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대외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systems), 수단(tools), 협약(arrangements) 등을 망라한 개념으로 2009년 10월 IMFC communique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음.

됨에 따라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짐.

- 경제여건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신용경색이라는 외부충격으로 인해 외화유동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국제 공조 필요성이 제기
- 각국이 스스로 외화유동성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국제 공조를 통해 안정적으로 외화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상시적이고 효율적 메커니즘 구축이 필요
- 현재 글로벌 금융안전망으로는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신용공여, 통화스왑, 역내통화협정 등이 있음.

□ 먼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경우 주로 IMF나 국제개발은행(MDB)<sup>4)</sup> 등 국제기구가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낙인효과 등의 문제점을 노출함.

- o 2009년 4월 G20 런던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IMF 재원을 7,500억 달러로 확충하고, 위기에방수단으로 신축적 신용공여(FCL, Flexible Credit Line)제도를 도입하였음.
  - FCL의 경우 이용한도를 없애고 상환기간을 장기화하는 등 기존의 대출프로그램과 차별화
  - 신용공여의 대상은 건전한 경제여건을 갖춘 국가들로 제한되는데 멕시코, 콜롬비아, 폴란드 등이 1년 만기 자금 800억 달러를 이용함.
- o 중앙유럽과 동유럽 및 저소득 국가에 대한 지원의 경우 국제개발은행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 o 그러나 자금이용국의 경우 낙인효과(stigma effect)로 인해 국제기구의 자금이용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임

□ 통화스왑의 경우 이번 글로벌 위기 중 외화유동성 부족에 대한 대응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였으나 평상시 외환보유액 축적을 유인하는 문제가 있음.

- o 미 연준의 경우 유럽, 스위스, 일본 및 영국과 무제한 통화스왑을 체결하였으며 브라질, 한국, 멕시코, 싱가포르를 포함한 10개국 중앙은행과 150~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을 체결
- o 유럽중앙은행(ECB)은 폴란드, 헝가리와, 중국은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한국 등과 통화스왑 거래를 실시

4) 국제개발은행은 주로 World Bank, African Development Bank, Asian Development Bank,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nter American Development Bank 등을 의미함.

- 통화스왑의 경우 실제로 자금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통화스왑 체결 자체가 시장의 불안심리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음.
  - 그러나 외환보유액이 많은 국가일수록 통화스왑 체결이 용이하였다는 점에서 정상 시 외환보유액을 축적하려는 유인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음.
    - 또한 통화스왑 체결이 특별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위기 발생 시 통화스왑을 이용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
- 지역 내 금융안전망 구축 사례로는 ECB의 VSTF(very short-term financing facility), Vienna Initiative, CMIM(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 등이 있는데 동 금융안전망의 경우 도덕적 해이 문제 가능성이 상존
- Vienna Initiative는 EBRD가 2009년 1월 도입한 제도로 유럽지역의 신뢰성 회복과 금융보호주의 우려를 완화하는데 기여
  - 단기유동성 부족 해소를 목적으로 2010년 3월 1,200억 달러 규모의 ASEAN+3 다자화펀드로 발족한 CMIM 또한 지역내 금융안전망에 해당
    - 한국의 경우 중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큰 192억 달러 분담
  - 지역 내 협약의 경우 국제기구의 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가 적으나, 재원확충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국가신인도가 낮고 지분율이 낮은 국가에 대한 빈번한 자금지원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문제 가능성이 있음.
- 이번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사용되었던 정책 중 개별 국가차원의 대내정책 및 외환보유액 활용은 한계가 입증되었고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기존의 글로벌 금융안전망 역시 각기 다양한 장·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종합적이고 심도있게 이루어지기를 기대. KiRi.